

2020년 6월 시청자위원회

2020년 6월 30일 (화)

코로나 19로 인한 서면회의

참석 :

시청자위원회 : 김선재위원장, 송은영 위원, 배장우 위원, 안경자 위원, 이기동 위원, 정현주 위원, 조은희 위원 (총 8명)

회사 : 신원식 사장, 이재근 경영국장, 장래균 편성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우경수 기술국장, 신영환 미디어전략국장, 신삼복 경영심의부장 (총 7명)

서면으로 시청자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

위원장 김선재 :

<전통의 맛 대전을 담다>

- 특집 방송으로 편성된 <전통의 맛 대전을 담다>를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광고성 후기와 방송이 만연한 요즘, 대전시에서 공인한 3대. 30년 시 인증 전통업소를 소개하며 우리 지역의 맛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전시에서도 2019년부터 21년까지 '대전 방문의 해'를 선언하며 지역이미지 제고 및 관광 유치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집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명소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방송컨텐츠를 통해 조명하는 것도 지역방송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마기행 길>

- 2020. 6. 26 경북 의성편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마스크를 턱에 걸거나 코를 가리지 않고 쓰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최주봉 진행자를 비롯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패널 대부분이 턱 아래로 내리고 있는 모습은 다시 한 번 고민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철저한 방역 및 문진 시행 후 마스크 없이 진행을 하거나,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프로그램 구성 시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정현주 위원 :

1. 노정렬의 시시각각

2020. 6. 14. 아동학대, 끊을 수 없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각 전문가를 통해 해석하고 사건의 전반적인 추이를 설명해주어,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데 유익하였다.

다만, 진행할 때 사회자가 하는 질문에 대해 패널의 답변을 돌아가며 하도록 지정하는 방법보다는 문항에 대한 전문분야 패널이 심층적으로 답변하도록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아동의 심리 또는 가해자 심리에 대한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사건전반에 대한 처리와 이해는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아동의 지원과 복지에 관한 것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비중있게 듣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다큐에세이 그 사람

홈페이지 다시보기 화면

현재 해당 프로그램 다시보기 홈페이지 화면은 방송일을 두 번 반복하여 노출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골라 볼 수 있도록 방송일과 당일방송 주제가 노출되는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 27일 “두 시인詩人 이야기”와 같이 표시하면 다양하게 제작되는 사람들의 삶을 그 화면만으로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다.

2020년 6월 27일 “두 시인詩人 이야기”

첫 시집을 발표한 최영 시인의 바쁘고,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따뜻한 방송이었다. 시인의 삶과 요양보호사의 삶이 바로 연결되지 않지만, 주인공의 시간을 쪼개는 일상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삶이 참 멋지다’하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바쁘게 사는 우리 삶에 그거 하나면 되지 하고 꿈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자극이 되는 내용이었다.

배장우 위원 :

6월 5일 뉴스투데이

시작 화면에서 남자 앵커와 여자 앵커 뒷면 배경 색이 달라 좀 놀랐다.

서울 뉴스에서도 앵커들이 서 있을 때 경계선이 많이 튼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대전MBC는 경계선보다는 백판의 색이 서로 달랐다.

그리고 뉴스 배경화면이 갑천과 한밭수목원 쪽으로 알고 있는데, 뒤 배경 장비 노후가 원인이라면 그냥 미리 찍어놓은 화사한 실사화면을 배경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남자 앵커가 상당히 젊은 인상이고 차분해서 좋은데, 톤이 상당히 낮다는 생각이 든다.

아침뉴스 앵커는 의외로 직장인들이 많이 보는 만큼 인지도가 높은 앵커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좀더 개성있는 색깔을 가진 앵커로 해서 뉴스의 인지도를 더 높여갔으면 좋겠다.

트램, 대전의료원 청신호 리포트 기사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8000억원 규모의 트램 사업이 대전의료원 사업과 함께 다루어졌다. 트램 사업은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호재 기사들은 다른 것과 묵지 않고 자체로 더 깊이있게 뉴스로 다

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대전의료원 자체도 코로나 19나 감염시설 필요성이 대두된 현재 정국에서 단독으로 기사화하기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충남농어민기본소득 기사 : 각 도와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광역단체중 최고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사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전국민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인들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논의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한다. 자금의 유동성이나 경기 부양에는 동의하지만, 아직은 국가의 인프라와 경쟁력 강화에 더 재정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인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오히려 기본소득과 같은 이슈가 뜨거울 때, 지방이나 정부의 재정 부담감을 더 꼼꼼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본다. 농어민 기본소득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언론 보도의 균형된 시각을 참고삼아 말씀드린거로 이해하시길 바란다.

6월 12일 뉴스투데이

서산시 읍내동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 기사 : 운전자의 전날 음주로 숙취 상태에서 어린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안타까운 기사였다. 스쿨존이 아니어서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과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차량들의 감속 운전이 없어 평소에도 무섭다는 어린이들의 인터뷰도 공감이 갔다. 자료 화면을 보니 네거리 횡단보도 직전 보조 횡단보도라 우회전 차량들이 주로 그 횡단보도를 다니는데, 어디든 그런 곳이 상당히 위험하다. 대전에도 일부 위험한 곳은 보조 횡단보도에도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MBC와 가까운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건너편에 천변 쪽으로 우회전하는 곳도 횡단보도가 있고, 월평동 천변 쪽도 설치되어 있는데, 보조 횡단보도도 네거리 주횡단보도가 보행신호면 같이 보행신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좋을 것이다. 뉴스에서도 이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송은영 위원 :

1. 생방송 아침이 좋다. (월~금) 08시30분

-2020년 6월 18일 생방송: 나를 지켜주는 슬기로운 집 밥 레시피 공모전홍보 중에 이윤주리포터의 나만의 집 밥 레시피로 열무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박종훈아나운서의 냉장고에 조금 안 먹는 반찬을 처리해야 한다는 대답과 함께 “이윤주 리포터가 시집만 가면 되겠어요”하는 대답은 방송에서는 부적절한 멘트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고 집밥을 잘 하다고 모두가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강요에 문제도 아니기에 듣기에 불편했습니다.

-2020년 6월22일 : 아침 N 퀴즈에서 보령 은고개 마을에 뽕나무 재배과정을 소개하고 바로 퀴즈에서 뽕에 관한 퀴즈를 내는 것은 좋아지만 바로 다음 퀴즈 문제가 뱀장어 문제여서 좀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나운서도 하필이며 왜 나무이름을 뽕나무라고 짓었는지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였고 리포터나 여 아나운서에게 뱀장어를 먹어보았는지 물어볼

수 있지만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오픈닝 멘트에서 박종훈아나운서가 “여성들은 비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자 이수진 리포터가 욕아로 인하여 여유있게 커피한잔 마시기 힘들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성별로 얘기하거나 욕아는 오로지 여성의 일(물론 독박욕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일 수도 있다)이라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는 멘트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민감하게 느끼고 변화하길 바랍니다.

-사회적 이슈 부분은 꼭 필요한 내용을 잘 전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

1. 생방송 아침이 좋다.

5월 시청자 위원회 의견 제시를 하고 책임감이 느껴지고, 방송을 열심히 하고 계신 관계자 분들께도 적잖은 미안감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변모하는 사회자와 리포터들의 생동감 넘치는 방송을 접하니 대전mbc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 중 지역 공동체 소식 당진군 순성면 백석리 매실마을 소식, 보령군 청라면 뽕나무 마을 소식, 서산 제철 육쪽마늘과 감자 수확소식등을 아침시간 주부 소비자들에게 좋은 정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제가 다른 사진 소식 사연도 좋아서, 제작하시는 분들이 매일 고민하시겠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컸고요. 전날 짧은 자막으로 내일 사진 주제를 알려 주시면 더 좋은 내용의 소식과 사연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전 충남 세종 소식을 전하는 대전mbc이기에 지역 소식(뉴스,먹거리등)의 안배에도 신경써 주시면, 지역민들의 지역방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커질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한가지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아침N퀴즈’ 문제를 제시할 때 화면에 ‘START’ 그리고 종료시 ‘TIME OVER’라 표시되는 문구를 한국어로 하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이주여성들이 TV에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한국사람들은 한국어로 표현 가능한 것도 영어로 쓰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중국에서 온 이주여성들은 민족성을 운운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 방송에서 지나치게 영어로 표시되는 것에 제가 민감한 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말 한국어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한가지는 날씨예보를 시작시와 끝날 때, 두 번 해주시기에 참 좋기는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 날씨 예보시에 대전중심,서해안중심으로 안내할 시에 너무 빠르게 진행

되어 연로하신 분들이 날씨예보에 민감하게 보실텐데, 너무 빠르게 화면이 넘어가서 보기가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1초라도 늦추면 안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매일 매일 생동감 넘치는 생방송 아침이 좋다를 준비해 주시고, 방송하시는 관계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방송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지적같은 의견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더 나은 대전MBC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1인입니다.

이기동 위원 :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외 1명이 진정한 대전MBC 채용성차별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들의 진정 이후 지난 1년 동안 진정에 대한 조사 및 확인 결과 4가지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나)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 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 라) 피진정 방송사의 대주주인 문화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이미 인권위 권고 결정문은 대전MBC에서도 통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이에 대해 대전MBC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권위의 채용성차별 인정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나, 다 항목의 권고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MBC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대전MBC 시청자위원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전MBC는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2017년 전개된 지역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을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 했고, 노조의 파업 승리 이후 대전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다하겠다는 선언도 했었습니다. 대전MBC 구성원들이 염원했던 자사사장 배출도 쟁취했습니다. 이후 보도부문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등 지역 시청자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최근까지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외부로 비쳐진 이러한 노력 이면에 내부적으로는 30여년 간 이어진 채용성차별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지은 아나운서를 비롯해 지금은 퇴사한 김지원 아나운서 2명은 이러한 채용성차별 문제를 공론화 했습니다. 이미 인권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유지은 아나운서 등이 제기한 채용성차별 관행은 최근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난 1997년 이후 대전MBC의 아나운서 채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 문제는 공론화 되지 않았을 뿐 이미 방송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내재되어 있던 문제였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인식하지 못했던 채용성차별문제, 노동인권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채 훑아 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전MBC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은 시청자이자 지역 주민으로서, 대전MBC 시청자 위원으로서 이번 인권위 권고에 대해 대전MBC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합니다.

1. 대전MBC가 지난 시기 걸어왔던 역사를 생각하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변화하는 노동 감수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대전MBC 차원에서는 참 괴롭고 불편한 현실입니다만 대전MBC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한다면 조건 없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길 바랍니다.

2. 지난 해 6월 유지은 아나운서의 인권위 진정 이후 제기된 채용성차별 논란에 대한 대전MBC의 대응은 합리적이지도, 유연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사자인 유지은, 김지원 아나운서에 대한 업무배제 조치와 지역 시청자들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도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대전MBC 다운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TJB 전 아나운서의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도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전MBC가 처한 상황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들의 노동자 지위가 인정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 또한 최근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대전MBC를 신뢰하고 성원을 보냈던 지역 시청자들을 생각하면 대전MBC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인권위 권고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정규직 전환 권고를 받은 유지은 아나운서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대전MBC노조와 당사자인 유지은 아나운서와 그 동간의 갈등을 씻고 대전MBC가 변화하는 노동감수성을 제고 해 노사관계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먼저 나서야 합니다. 그런 노력만이 그동안 실추된 대전MBC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

1. 뉴스데스크

○ 2020. 6. 2 쿠팡 물류센터서 30대 여성 돌연사 등

뉴스데스크는 6월 상반기에 쿠팡 조리사 사망 사건을 집중 보도하였다. ‘쿠팡 물류센터서 30대 여성 돌연사(6. 2)’ 보도를 시작으로 ‘쿠팡 조리사 사망사건 정치권도 나선다(6.15)’까지 10여 건을 보도하였다.

해당 보도를 통해 △코로나 이후 열악해진 작업 환경 △락스와 세제 혼합 시 위험성 증가 △하청 재하청 과정에서 원청의 책임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정당 등의 조사 촉구 등 사건을 둘러싼 세부 문제가 다양하게 전달되었다.

유가족, 동료 조리사, 구급대원, 의사, 경찰, 민주노총, 정당인 등 여러 취재원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한 뉴스데스크의 지속적인 관심은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 노동 환경 문제 점검, 외주업체와 원청의 제 역할을 촉구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쿠팡 관계자 및 하청 재하청 관련 용역업체 관계자의 인터뷰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회사 측의 입장 등이 분명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등의 주장과 경찰 등의 입장만 반복 보도됨으로써 사건의 진행상황과 해결 방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번 보도는 사망원인 규명, 관련자에 대한 법적 처리, 작업 환경 문제 등 후속 보도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위치하는 중견 기업의 작업 환경을 재점검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2020. 6. 25. 그림자로 불난 곳 확인...소방관이 개발

한 소방관이 불꽃의 그림자만으로 발화점을 찾아낼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서 화제가 되었다는 기사이다. 또한 이 기술은 화재원인을 규명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본 기사는 기술에 대한 설명만 있고 이 기술이 언제, 어떤 기관의, 어떤 과정으로 개발되어 화제를 모으거나 인정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평소 화재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실험 장면과 함께 보여줬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기사로 평가된다. 관심이 큰 기사인 만큼 정보 누락 없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지역 재난방송 관련(코로나)

코로나 청정지대로 불렸던 대전은 6월 16일 47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6월 30일 현재 117번 환자까지 매일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촉자

의 빠른 파악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시민 모두가 알고 있다. 코로나 문제가 엄중한 이때 지역 언론은 확진자 발생 및 동선 관련 뉴스를 빠르게 다수 지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는 매일 오전 10시 30분 코로나 19 환진자 추가 발생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페이스북과 이츠대전 TV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민은 한계가 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오전 시간에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 시간에 TV를 통해 관련 속보가 전달될 필요가 있다.

대전MBC는 매일 뉴스를 통해 코로나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역뉴스를 시청하지 않는 시민은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고 심각성을 인식하기도 어렵다. 코로나 등 지역에 재난이 닥쳤을 때에는 생중계, 속보, 방송 자막 등을 활용해 지역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